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트레킹 동행기 <상>

현대불교신문사와 네팔 카트만두 소재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이 공동 주최한 '영봉스님과 함께하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이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중앙 히말라야 피케이(Pkey)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비구스님 4명과 거사 3명 우바이 7명 등 14명이 함께 한 행선 트레킹은 불교계 언론사처음으로 진행됐다. 영봉 스님은 20여 년 동안 히말라야 지역을 살살이 등반한 노하우를 최대한 반영해 행사를 리드했다.



지리에서의 출발. 옆 사진은 네팔 여고생들.

소녀들이 인사한다. "나마스테".

지리의 가게들.

보름간의 일정 가운데 2일은 항공편으로 2일은 버스로 이동했고 2일은 카트만두 시내 유적관광을 했다. 따라서 온전히 행선을 한 것은 9일이었다. 9일간의 행선 트레킹을 일정별로 요약, 2회에 걸쳐 연재 한다.

길을 걸으며 길은 본래 하나였음을 깨닫다

#나마스테. 땀과 물 흐르는 얼굴들

11월 8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있었는가? 5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다. 나를 긴장하고 있었다. 비행기로 하루, 버스로 하루 그렇게 이틀을 이동해 이 적막한 산속 마을에 왔다. 마을 이름은 '지리', 해발 1900m 지역이다. 정말 '지리' 하게 온 곳이다. 카트만두에서 200km 가량 떨어진 곳이라는데 버스로 9시간 가까이 왔으니 말이다. 높은 산을 몇 개나 넘어 왔는지 알 수 없다. 하긴 높은 산이라고 말했지만 이곳에서는 이름조차 알지 못한 그저 그런 산들이다. '산의 왕국' 네팔에서 해발 3000m 이하의 산들은 이름도 없기 일쑤다. 잠결에도 여전히 신기한 것은 어제 환하게 피어있는 벚꽃을 봤다는 것이다. 이 가을에 뭘 벚꽃? 어디 그 뿐인가? 어느 마을에서는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를 봤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꼬도(우리나라의 피 같은 작물)를 수확하는 풍경도 봤다. 봄과 가을의 풍경을 하루에 보았다. 아니다. 멀리 하얗게 눈을 덮어 쓰고 성자처럼 서 있는 설산을 볼 때의 그 감탄사도 생생하다. 봄과 가을과 겨울을 하루에 다 본 셈이다. 그럼 여름은? 풀꽃 만지 나는 길을 달리는 차안에서의 그 답답함과 등짐기를 적시던 땀이 여름이라면 어제 하루 4계절을 다 겪은 것이 분명하다.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동요 속의 마을 같은 반달의 좁은 눈독길을 지나는 트레킹 동행자들. 뒤로 포터들이 따라오고 있다.

있을까? 그 길에는 쇠뿔이나 염소뿔이 없었을까? 부처님이 걸으신 길은 인간의 길이었고 자연의 길이었고 무한의 길이였으리. 길을 걸으며 길을 생각하는 동안 목이 말라왔다. 길가에 혹은 못지 앞마당에는 등짐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단이 쌓여져 있다. 포터들은 거기에 가지런히 바구니를 올려놓고 몸을 쉰다. 배낭을 올려놓고 물병을 꺼내 뜨거운 물 한잔을 마시는 즐거움도 트레킹에서 배우는 행복 중의 하나다. "내가 말이야. 수 십 년 걸망 메고 선방을 다녔는데 요새는 그놈의 차를 몰고 다니느라 두 다리를 쓸 일이 없었더니 오늘 아주 힘드네 그려." H스님의 솔직한 뉘우리에 일행 모두가 묵언으로 동의했다. 좁은 산길, 두 다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오후의 내리막길은 두 개의 스틱이 없다면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손목에 조여 맨 스틱 끝에 의지하면 몸무게의 3할 이상을 스틱이 지탱해 주니 그만큼 힘이 덜 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스틱 보다 더 힘을 보태 주는 것은 풍경이다. 공기가 맑은 탓인지 멀리 있는 것들이 매우 가깝게 보인다. 돌려 말하면, 가까운 듯해도 막상 가보면 제법 먼 거리다. 먼 산들의 우람한 기운이 가슴팍으로 밀려오고 하염없는 다량논들의 구불구불한 곡선과 셀 수 없이 층을 이룬 그 자자순순의 끈적이는 생활력을 엿보는 순간마다 새로운 힘이 솟는다.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는 느낌이였다. 가파른 경사로를 3시간가량 내려간 곳에 제법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강이 있고 강가에 조그만 못지 타운 하나가 숨어 있었다. 긴 출렁다리를 건너 도착한 그 마을의 이름은 시발라야. '쉬바 신의 다리'라는 의미란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넌 그 쇠뿔 출렁다리가 쉬바신의 다리인가보다. 첫 날인만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걸었다. 낮기온은 26도 내외로 걸기에 쾌적했다. 그러나 다리가 뻘뻘해 오는데 오후는 그냥 쉬하니 이게 똘 똘이 싫었다. 몸의 컨디션 유지와 고소와 일교차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해 하루의 걷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트레킹의 중요한 노하우다. 심지어 식재료의 성분과 음양오행에 맞춘 기증을 따지기도 한다.

침낭에서 몸을 뺐다. 무슨 애크레처럼 침낭에 웅크리고 있던 그 방의 풍경 또한 한국에서라면 말도 안된다. 침대 두 개가 놓인 방의 크기는 한 평 반 정도. 침대 넓이는 60Cm을 넘지 않고 길도 키가 조금 더 크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실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소방법이나 건축법이라면 백번은 더 철거당했을 이 4층짜리 목조주택이 게스트하우스다. 간판에는 못지나 호텔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기도 했다. 가이드가 서툰 한국말로 영장을 지른다. "이제부터 이 집 보다 좋은데서 잠자기도 힘들 겁니다." 아침 운동과 식사를 하고 출발이다.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 사진을 한 컷 찍고 저저분하고 얼룩덜룩한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본격적인 트레킹이다. 행선이라 했는데 '화두'는 무엇으로 한다? 행선도 선이니 화두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영봉 스님, 명색이 행선 트레킹인데 화두 하나씩

들고 가야죠?" "그냥 걸으세요. 걷기도 힘들텐데 들긴 뭘 들겠다는 겁니까?" 황당한 대답이지만 그게 명답이란 것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30분정도를 걸으니 오르막길이 이어졌다. 산 하나를 넘는 것이 첫날의 일정이다. "나마스테~" 이 인사말이 갖는 아름다운 의미를 아는가? '나마스테- 손 모아 당신의 영혼이 평화롭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사인가? 그 아름다운 인사를 처음 받았다. 길가집의 어두컴컴한 부엌을 배경으로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꼬질꼬질한 얼굴에 눈망울만

보이는 듯한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마스테~" 인사를 받긴 했는데 찜찜한 이 느낌은 뭐지? 그 짧은 순간의 혼돈을 해결해 준 것은 그 아이의 뒤에 서 있는 새내이 손에 들린 사랑이었다. 이로부터 나는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훨씬 노련하게(?) 받을 수 있었다. 단, 주머니에 사랑이나 초콜렛이 없으면 그 인사를 못들은 척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날 길에서 체득한 것은 나마스테 뿐이 아니었다. 사람과 소와 염소 심지어 돼지도 함께 쓰는 길이었으므로 그 길 군데군데를 장식한 배설물들에 익숙해

야 했고 밟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했다. 길은 하나일 때 편하다. 어쩌면 길은 본래 하나일 것이다. 사람과 짐승의 길이 다르고, 사람끼리도 저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믿어 온 문명사회에서의 삶은 얼마나 많은 번민과 갈등으로 이어지는가? 두렵게 포장해버린 도심의 길 위에서 얼마나 무참하게 많은 것들을 포장하고 숨기며 하루하루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며 애써 왔던가? 좁은 흙길에 철퍼덕 싸갈진 쇠뿔이나 점점이 뿌려진 염소뿔을 바라보며 길은 모를지기 차별 없이 함께 가는 것임을 생각했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수행하고 길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길에서 평생 진리를 살하시고 길가나 무 그늘에서 열반에 드신 그 성인의 길은 어떤 길이

19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a book '선문염송 14권' (Zen Monks' Writings, 14 volumes).

Advertisement for Hwangto Sambaekcho (皇都 삼백초) featuring images of the product and text about its health benefits.

Advertisement for Hanok Architecture (한옥건축)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Hae Dong Buddhist Art Museum (해동불교미술원) featuring images of Buddhist art and contact information.